



공장 내부야말로 이익을 만들어내는 원천(源泉)이 있다

鈴木 了 / 大和그라비아(주) 임원 · (주)DG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 지 만 / 화신기계공업(주) 기획실장

본고는 일본 大和그라비아(주) 임원이자 (주)DG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인 鈴木 了 씨가 일본 포장 타임지에 연속으로 기재한 칼럼으로 화신기계공업(주) 김지만 기획실장이 번역했다. 본고를 통해 일본 포장 업계 현황을 살펴보고, 그라비아 인쇄 업계에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④ 룰(rule) 준수의 중요성

새로운 물건을 사도 이 정도까지는 버려도 괜찮다는 허용 로스,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로 좁혀 가는 것이 포인트이지만, VOC 삭감은 별도로 하고, 기본적으로는 구입해서 버리는 물건은 용제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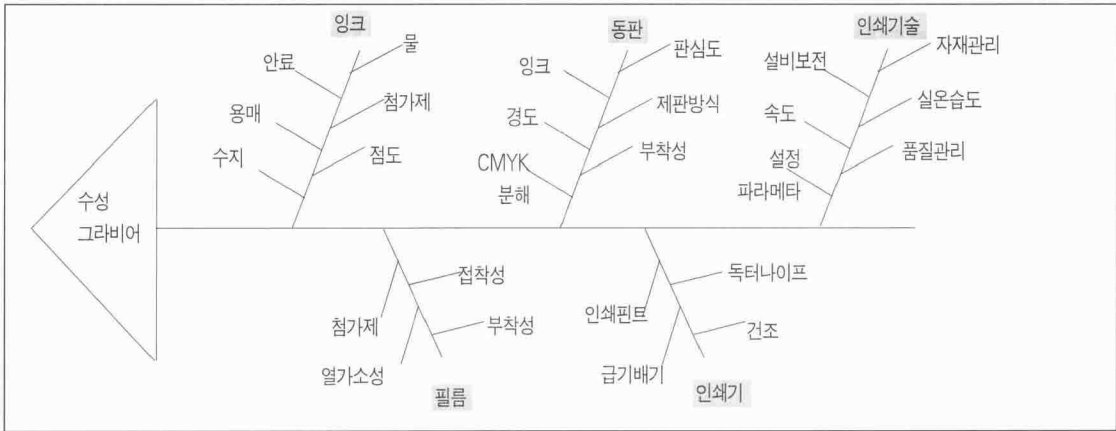
연포장 업계 내에서는, 필름, 잉크, 그 밖에 여러 재료를 구입하고 버린다. 게다가 산업폐기물이므로 돈을 들여 버린다는 비상식적인 악순환이 통하고 있다. 그 요인 중 하나는, 사람(Man), 재료(Material), 기계(Machine), 방법(Method) 4M의 불균형일 것이다. 사람,

재료, 기계의 3M은 간단히 바꿀 수는 없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방법이다.

공장 내에서의 수단과 방법이 명확하게 이해되어 있지 않아서, 어떠한 공정에 있어도 제조현장 내에서는 판단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도요타나 가전 메이커에서는 작업 공정(工程) 중에 직원이나 기술자들이 판단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없다. 따라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을 부하 직원에게 전가시키는 상사나, Top은 좋지 않다고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실천할 것인가. PDCA(Plan, Do, Check, Action)의 행동이 어떻게 취해져 있는가. 특성 요인도(要因圖)에서 생선의 그림을 그리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고 주사위로 정하는 듯한 관리에는 찬성할 수 없다.

정해진 룰의 존재(存在)를 알고, 이해하며,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 속도 위반과 같이 발각되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으로는, 우리의 제품은 통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의 소비자가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항상 마음에 새길 것은 정해진 룰과 매뉴얼(manual)을 꼭 지킨다는 것으로, 이미 결정된 룰이 정확하게 지켜졌다면, 로스·미스를 포함한 불량품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성은 정해진 룰은 꼭 지키며 반복해서 잘 준수하는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남성은 지키

지 않고, 또한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작업이 익숙해지면 소홀히 하려는 경향이 있다.

「10분에 한 번, 3포인트(예를 들면, 독타선, 오점, 인쇄의 흐릿한 부분 등)를 확인한다」라고 정해져 있어도, 바로 전 작업과 그 뒤에도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정해진 룰을 지키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공장에서의 물건 만드는 것은 전부 여성이 하고, 남성은 모두 퇴사시키면 된다. 최종공정의 제대(製袋)에는 여성이 많은 이유도 이러한 사정과 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만은 단정할 수 없다.

미국의 초대형 기업이 한 해에 2, 3회 본사의 다이와 그라비아 공장을 견학하러 온다.

도요타 자동차의 일본 시찰 코스에 본사의 공장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지금까지 보잉, 플랫 & 호이토니, 인스토만코다, 벤츠, 포르쉐, 오치스, 바르센 등 쟁쟁한 기업에서 견학자가

왔다.

그들은 항상 KAIZENN(개선)이라고 프린트 된 티셔츠를 입고 있다.

바야흐로 개선은 세계의 공통용어가 되고, 그들도 일본을 따라붙고 추월하려고 필사적이다.

개선은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도전)할 것인가에 있고, 단지 제안을 내놓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비용, 시간의(대비) 효과는 어떤지, 계속적으로 준수 가능할지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사용 후, 사용 전 만으로는 곤란하다.

참고로, 설비에는 최근 FS(feasibility study 「사업화 사전 조사」, 「실행 가능성 평가」등의 의미)라는 것이 자주 지적된다. '투자

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점이다. 그 때문에 본래의 비용 대비 효과, 투자 대비 효과가 명확히 되었을 때에 비로소 설비 투자에 단행할 수 있다.

현장이야말로 숨겨져 있는 개선할 곳과 쓸모 없는 부분들이 많다. 항상 제조 현장 내에서 3현주의(三現主義)인 현장(現場), 현물(現物), 현실의 문제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원리(原理), 원칙(原則)을 더해서 5현주의(五現主義)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리, 원칙은 더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다.

항상 낭비 요소가 없는 Just - In-Time(① 필요할 때에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만큼 만드는 것, ② 사용할 때에 사용할 물건을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을 생산할 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